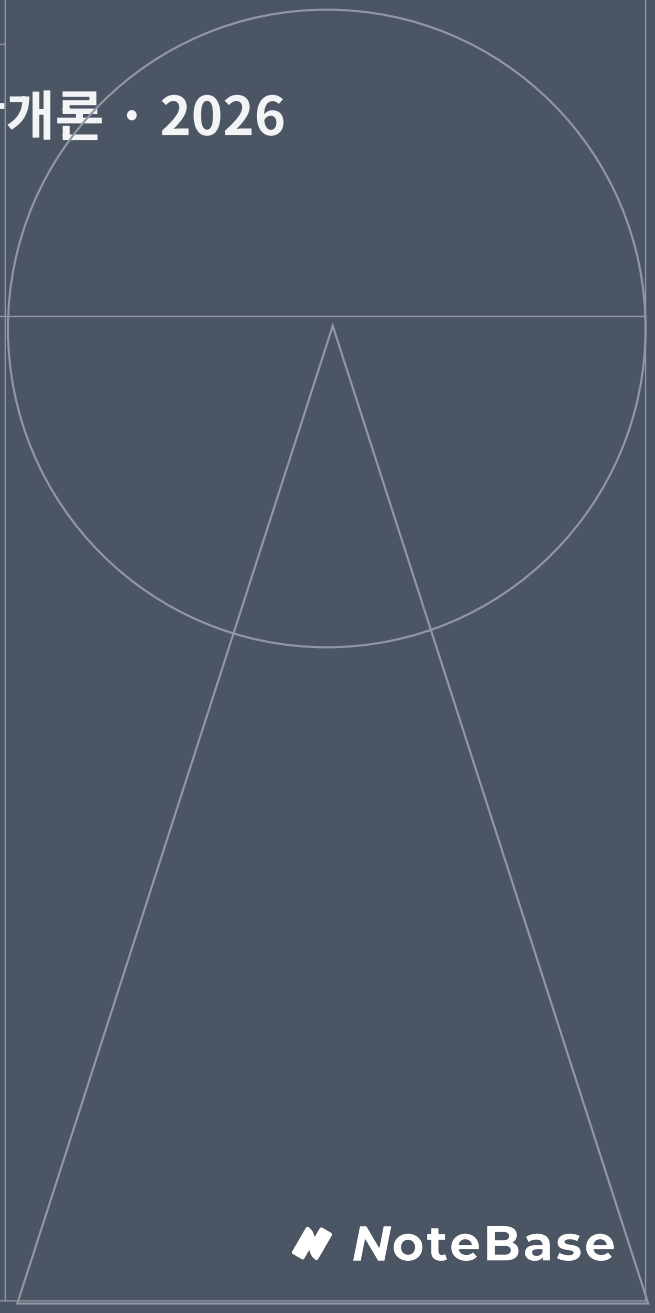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정보학개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정보학개론 · 2026

공무원/법원직/9급 · 정보학개론 · 2026

문 1.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집 내 개체 간의 유사성은 최대화하고, 서로 다른 군집 간의 유사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비계층적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주어진 개수의 군집으로 객체들을 할당하는 K-means 알고리즘이 있다.

③ 계층적 군집화는 유사한 군집끼리 묶어가는 방식으로, 주요 방법으로는 단일 연결법, 완전 연결법, 와드 연결법 등이 있다.

④ 군집 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범주(Category)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군집분석의 목적과 계층적·비계층적 군집화의 특징, 그리고 군집분석이 비지도 학습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군집분석은 정답 범주가 미리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에서 서로 유사한 개체끼리 군집을 형성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다. 군집 내부의 유사성은 크게 하고 군집 사이의 유사성은 작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층적 군집화는 군집을 단계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계층 구조를 만들고, 비계층적 군집화는 미리 정한 군집 수에 맞추어 개체를 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같은 군집에 속한 개체끼리는 최대한 유사하고,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개체끼리는 최대한 구별되도록 묶는 것이 군집분석의 기본 목표이다.
② O — K-means는 군집 수 K를 먼저 정한 뒤 각 개체를 가장 적절한 군집에 반복적으로 배정하는 대표적인 비계층적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③ O — 계층적 군집화에는 가까운 군집을 차례로 합치는 방식이 있으며, 군집 간 거리를 정하는 대표적 연결 기준으로 단일 연결법, 완전 연결법, 와드 연결법 등이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전에 정의된 범주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지도 학습'이다. 실제로 군집분석은 사전 범주나 정답 라벨 없이 데이터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찾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군집화와 분류를 바꾸어 서술한 함정이다. 분류는 미리 주어진 범주와 정답 라벨을 학습하는 지도 학습이고, 군집화는 라벨 없이 데이터 자체의 유사한 구조를 찾는 비지도 학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전에 정의된 범주·정답 라벨’이 있으면 분류와 지도 학습으로, ‘라벨 없이 유사한 개체끼리 묶음’이면 군집화와 비지도 학습으로 판단한다. 또한 군집 수를 먼저 정하는 K-means는 비계층적 방법이고, 군집을 단계적으로 결합·분할하면 계층적 방법이다.

암기 포인트

분류는 라벨 있음·지도 학습, 군집화는 라벨 없음·비지도 학습이다.

NoteBase

문 2. 2024년에 A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수가 300편이고, 이들 논문이 2024년에 900회, 2025년에 600회 인용되었다면 A학술지의 즉시성 지수(Immediacy Index)는 얼마인가?

① 2

② 3

③ 4

④ 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같은 해에 출판된 논문이 그 출판 연도에 받은 인용 횟수를 이용해 즉시성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24년 출판 논문 수는 300편이고, 이 논문들이 2024년에 받은 인용 횟수는 900회이다. 즉시성 지수에는 출판 다음 해인 2025년의 인용 횟수 600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즉시성 지수=해당 연도에 출판된 논문이 같은 연도에 받은 인용 횟수해당 연도에 출판된 논문 수
즉시성 지수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얼마나 빠르게 인용되는지를 나타내므로 같은 연도의 출판 논문 수와 인용 횟수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2024년 자료만 공식에 대입한다.
$\frac{900}{300} = 3$
따라서 A학술지의 즉시성 지수는 3이다.

선지 판단

① X — 2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2025년 인용 횟수 600회를 300편으로 나누면 2가 되지만, 출판 다음 해의 인용은 즉시성 지수에서 제외한다. 올바르게는 2024년 인용 횟수 900회를 사용하여 3이 된다.
② O — 2024년 인용 횟수 900회를 2024년 출판 논문 수 300편으로 나누면 3이 된다.
③ X — 4는 주어진 값으로 계산한 즉시성 지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900/300 = 3이다.
④ X — 5는 주어진 값으로 계산한 즉시성 지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900/300 = 3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2는 2025년 인용 횟수 600회를 분자에 넣을 때 나오는 값이다. 즉시성 지수에서는 출판 연도와 인용 연도를 같게 맞추며, 2024년과 2025년의 인용 횟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출판 연도를 먼저 확인한 뒤, 그 해에 출판된 논문 수를 분모에 두고 그 논문들이 같은 해에 받은 인용 횟수만 분자에 둔다.

암기 포인트

즉시성 지수는 '당해 연도 출판 논문의 당해 연도 인용 횟수 ÷ 당해 연도 출판 논문 수'이다.

NoteBase

문 3. 아래 시소러스 표현을 보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서관
NT 공공도서관
NT 대학도서관
RT 사서
RT 문헌정보학
전자도서관
USE 디지털도서관
디지털도서관
UF 전자도서관
UF 벽 없는 도서관

<보기>
㉠ '전자도서관'은 비디스크립터이며, 색인 시 '디지털도서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도서관'과 등가관계에 있다.
㉢ '사서'는 '도서관'과 연관관계에 있다.
㉣ '벽 없는 도서관'이 디스크립터이고 '디지털도서관'이 비디스크립터이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소러스에서 USE·UF가 나타내는 우선어와 비우선어의 관계, NT가 나타내는 계층관계, RT가 나타내는 연관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SE: 해당 용어 대신 뒤에 제시된 우선어를 사용하라는 지시이다. 따라서 USE 앞의 용어는 비디스크립터이고 뒤의 용어는 디스크립터이다.
UF(Used For): 디스크립터 아래에 그 디스크립터로 대체되는 비디스크립터를 제시한다.
NT(Narrower Term): 상위어보다 범위가 좁은 하위어를 나타내는 계층관계이다.
RT(Related Term): 상하 관계나 동의 관계가 아닌 의미상의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이 모두 옳다. '전자도서관 USE 디지털도서관'이므로 전자도서관은 비디스크립터이고 디지털도서관이 색인에 사용하는 디스크립터이다. 또한 '도서관 RT 사서'이므로 사서는 도서관과 연관관계에 있다.
② X — '㉠, ㉡, ㉢'에서 ㉡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NT이므로 도서관과 계층관계에 있으며, 등가관계가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③ X — '㉡, ㉢, ㉣'에서 ㉡과 ㉣을 포함하고 ㉠을 제외한 부분이 틀렸다. ㉡은 계층관계를 등가관계로 잘못 설명했고, ㉣은 디스크립터와 비디스크립터를 뒤바꾸었다. 실제로는 디지털도서관이 디스크립터이고 벽 없는 도서관이 비디스크립터이며, ㉠도 옳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④ X — '㉠, ㉡, ㉢, ㉣'에서 ㉡과 ㉣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의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하위어이고, ㉣의 벽 없는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의 UF로 제시된 비디스크립터이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NT를 동의어 관계로 오해하거나 UF 뒤의 용어를 디스크립터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NT는 계층관계이고, UF 아래에 적힌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비우선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SE는 화살표처럼 '앞의 비우선어 → 뒤의 우선어'로 읽고, UF는 우선어 아래에 모인 비우선어로 읽는다. NT는 하위어, RT는 관련어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USE 뒤는 디스크립터, UF 뒤는 비디스크립터, NT는 하위어, RT는 관련어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MeSH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MeSH용어는 개념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구조로 배열한 표이다.
㉡ 비통제어휘(uncontrolled vocabulary)이다.
㉢ MEDLINE/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 MeSH는 Medical Subject Headings의 약자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MeSH의 용어 통제 여부, 계층 구조, 사용 데이터베이스, 약어의 뜻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eSH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만든 의학 분야의 통제어휘 시소러스이다. 동의어와 유사 표현을 표준 주제명으로 모으고, 디스크립터를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트리 구조로 조직한다. MEDLINE 문헌의 색인과 PubMed의 검색에 사용되며, MeSH는 Medical Subject Headings의 약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이 모두 틀리다. ㉠의 '수평적인 구조'는 잘못된 표현이며, MeSH 디스크립터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트리 구조로 배열된다. ㉡의 '비통제어휘'도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통제어휘이다.
② X — ㉢은 맞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은 '비통제어휘'가 아니라 '통제어휘'로 고쳐야 한다. ㉢처럼 MeSH는 MEDLINE의 색인과 PubMed의 검색에 사용된다.
③ O — ㉢과 ㉣이 모두 맞다. MeSH는 MEDLINE/PubMed에서 활용되며, 그 명칭은 Medical Subject Headings의 약자이다.
④ X — ㉣은 맞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의 '수평적인 구조'는 '상위·하위 개념을 연결한 계층적 트리 구조'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수평적'과 ㉡의 '비통제'는 MeSH의 핵심 성격을 정반대로 바꾼 표현이다. ㉢이나 ㉣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면 ② 또는 ④를 고르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eSH가 나오면 ‘NLM의 의학 통제어휘, 계층적 트리 구조, MEDLINE 색인·PubMed 검색, Medical Subject Headings’의 네 요소를 기준으로 각 진술을 하나씩 판정한 뒤 조합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MeSH는 의학 주제명 통제어휘이며, 수평·비통제가 아니라 계층·통제이다.

NoteBase

문 5. 메타데이터의 인코딩(Encoding) 구문 표준 및 마크업 언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HTML: 이식성이 높으나 한정된 태그 구조로 인해, 복잡한 문서 구조나 임의의 레이아웃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XML: HTML의 구조적 한계와 SGML의 복잡성을 보완하여,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W3C가 제안한 표준 메타언어이다.

③ SGML: 강력한 문서 구조 정의 기능을 가졌으며, 초기부터 웹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개발되어 현재 웹 메타데이터 인코딩의 핵심 표준으로 쓰인다.

④ RDF: 웹 자원의 메타데이터 정의를 위한 개념적 모델로, 데이터를 자원(subject), 속성(predicate), 속성값(object)의 트리플(triple) 구조로 표현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HTML·XML·SGML·RDF의 역할과 웹 환경을 고려한 발전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HTML은 웹 문서의 표현에 사용하는 정해진 태그 중심의 마크업 언어이다. SGML은 문서의 구조와 태그 체계를 정의할 수 있는 범용 메타언어이지만 복잡하다. XML은 SGML의 기능을 단순화하여 웹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교환하기 쉽게 만든 메타언어이다. RDF는 웹 자원에 관한 정보를 주어-술어-목적어의 트리플로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모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HTML은 미리 정해진 태그를 사용하므로 호환성과 이식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문서 구조에 맞는 태그를 자유롭게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O — XML은 SGML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HTML보다 자유롭게 구조를 정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W3C 표준 메타언어로, 웹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하는 데 적합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초기부터 웹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개발되어 현재 웹 메타데이터 인코딩의 핵심 표준으로 쓰인다'이다. SGML은 웹보다 앞서 개발된 범용 문서 마크업 메타언어이며, 복잡성 때문에 웹에서 직접 널리 쓰이기 어려웠다. 올바르게는 웹 환경을 고려해 SGML을 단순화한 XML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표현·교환에 널리 활용된다고 해야 한다.
④ O — RDF는 자원에 관한 관계를 주어(subject), 술어(predicate), 목적어(object)의 트리플로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모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SGML의 강력한 문서 구조 정의 기능이라는 사실에 웹 중심 표준이라는 XML의 특징을 섞었다. '웹 환경을 고려한 단순화'는 SGML이 아니라 XML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해진 웹 태그는 HTML, 범용이지만 복잡한 원형 메타언어는 SGML, 웹용으로 단순화한 구조화 문서 메타언어는 XML, 웹 자원의 관계를 트리플로 표현하는 모델은 RDF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SGML은 범용 원형, XML은 웹용 단순화, HTML은 정해진 태그, RDF는 트리플이다.

NoteBase

문 6. 동시출현분석(Co-occurrence Analysis) 및 동시출현 단어분석(Co-word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출현분석은 분석 단위에 따라 동시출현 단어분석, 공저자(co-authorship) 분석, 동시분류(co-classification)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동시출현 단어분석은 두 단어가 동일 문헌에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단어 간의 연관성을 산출하는 기법이다.

③ 동시출현 단어분석의 주요 가정은 '동시출현 빈도가 낮을수록 두 단어 사이의 개념적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이다.

④ 동시출현 단어분석의 주요 단계로는 키워드 추출 및 정제, 행렬 작성, 네트워크 분석 등을 활용한 시각화, 지적 구조 해석 등이 포함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동시출현분석의 유형과 동시출현 단어분석의 원리·절차를 이해하고, 동시출현 빈도와 개념적 관련성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시출현분석은 문헌에서 둘 이상의 분석 단위가 함께 나타나는 관계를 바탕으로 지적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분석 단위가 단어이면 동시출현 단어분석, 저자이면 공저자 분석, 분류 항목이면 동시분류 분석이 된다. 동시출현 단어분석에서는 두 단어가 같은 문헌에 자주 함께 등장할수록 두 단어의 개념적 관련성이 크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시출현분석은 함께 출현하는 분석 단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동시출현 단어분석, 공저자 분석, 동시분류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② O — 동시출현 단어분석은 두 단어가 동일 문헌에 함께 나타난 빈도를 이용하여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동시출현 빈도가 낮을수록'이다. 올바르게는 동시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두 단어 사이의 개념적 관계가 밀접하다고 본다.
④ O — 일반적인 분석 과정은 키워드 추출·정제, 동시출현 행렬 작성,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 지적 구조 해석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동시출현 빈도와 개념적 관련성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선지이다.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관련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함께 세는 대상이 단어·저자·분류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동시출현 횟수와 관계의 강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같이 많이 나오면 관계도 강하다: 고빈도 동시출현은 높은 개념적 관련성을 뜻한다.

NoteBase

문 7. 정보검색에서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TF-IDF 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TF는 특정 문헌 집단 전체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총 횟수를 의미한다.

② IDF는 어떤 단어가 소수의 특정 문헌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 값이 작아진다.

③ 흔하게 쓰이는 관사나 조사 등은 많은 문헌에 등장하므로 IDF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④ 특정 단어가 한 문헌 내에서 자주 출현하고, 전체 문헌 집단에서는 적은 문헌에만 출현할수록 해당 문헌에서 그 단어의 가중치는 높아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TF와 IDF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며, 두 값이 어떤 단어의 가중치를 높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TF(단어 빈도)는 특정 단어가 한 문헌 안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나타낸다.
IDF(역문헌 빈도)는 특정 단어가 전체 문헌 집단에서 얼마나 드물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낸다. 전체 문헌 수를 N, 해당 단어가 나타난 문헌 수를 df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IDF = \log(N/df)$로 나타낸다.
TF-IDF는 한 문헌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전체 문헌 집단에서는 드문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특정 문헌 집단 전체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총 횟수'이다. TF는 집단 전체의 총출현 횟수가 아니라 특정 문헌 안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뜻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소수의 특정 문헌에만 나타날 때 값이 작아진다'이다. 실제로는 출현 문헌 수가 적을수록 희소성이 커지므로 IDF 값이 커진다.
③ X — 틀린 표현은 '많은 문헌에 등장하므로 IDF 값이 매우 높다'이다. 관사나 조사처럼 많은 문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문헌 구별력이 낮으므로 IDF 값이 낮다.
④ O — 한 문헌 안에서 자주 출현하면 TF가 커지고, 전체 문헌 중 적은 문헌에만 출현하면 IDF가 커진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의 TF-IDF 가중치는 높아진다.

오답 포인트

TF의 범위를 '한 문헌'이 아니라 '문헌 집단 전체'로 바꾸거나, IDF의 희소성 관계를 반대로 제시한 표현이 함정이다. 특히 '흔한 단어일수록 IDF가 높다'는 설명은 역문헌 빈도의 의미와 정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TF는 한 문헌 내부의 빈도, IDF는 전체 문헌 집단에서의 희소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눈다. '문헌 안에서 자주, 문헌 집단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인지 확인하면 높은 TF-IDF 가중치를 판별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TF는 문헌 안에서 자주, IDF는 문헌 전체에서 드물게, 두 조건이 겹치면 가중치가 높다.

문 8. 정보격차의 유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근격차는 정보기기와 같은 물리적·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 격차로, 후속 단계들에 대한 선행요소이자 기반 요건이다.

② 역량격차는 개인 간에 정보기기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만으로도 정보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질적 이용격차는 이용의 다양성과 활용 수준의 격차를 의미하며, 정보기기를 이용해 얼마나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가와 얼마나 유용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④ 성과격차는 동일한 접근성과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정보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격차를 접근, 역량, 질적 이용, 성과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의미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근격차는 정보기기·통신망 같은 물리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의 차이이다.
역량격차는 정보기기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지식과 능력의 차이이다.
질적 이용격차는 온라인서비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하고 정보를 얼마나 유용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지의 차이이다.
성과격차는 정보 활용을 통해 얻는 편익이나 부가가치의 차이이다.
접근은 후속 단계의 기반이지만, 접근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역량·활용·성과의 격차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접근격차는 정보기기와 같은 물리적·물질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의 차이이며, 정보 이용과 성과로 나아가기 위한 선행 기반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만으로도 정보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역량격차는 효과적인 이용 능력의 차이이므로 단순한 접근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과 함께 이용 역량, 질적 활용, 성과의 격차도 줄여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③ O. 질적 이용격차는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의 다양성과 정보기술을 유용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의 차이를 뜻한다.
④ O. 성과격차는 접근성과 이용능력이 같더라도 정보 활용 방식과 부가가치 창출 정도에 따라 실제 정보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역량격차의 정의 앞부분은 맞게 제시한 뒤, 접근만으로 정보격차 전체가 해소된다고 결론을 바꾼 선지이다. 접근 가능성과 실제 이용 능력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기나 망의 보유·접속 기회는 접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역량, 이용의 다양성과 활용 수준은 질적 이용, 최종 편익과 부가가치는 성과로 구분한다. 한 단계가 충족되면 나머지 단계도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접근은 기회, 역량은 능력, 질적 이용은 활용 수준, 성과는 최종 혜택이다.

NoteBase

문 9. 조합색인(coordinate index)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색인이란 두 개 이상의 색인어를 조합하여 문헌의 주제를 만들어 내는 색인법이다.

② 전조합색인은 복합주제를 하나의 색인어로 표현하여 한 번의 검색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후조합색인은 탐색 이전에 색인작성자가 색인어를 미리 조합해 두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개념을 조합할 필요가 없다.

④ 전조합색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제명색인과 분류색인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합색인의 뜻과 전조합색인·후조합색인에서 색인어를 조합하는 시점 및 주체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합색인은 둘 이상의 색인어를 결합하여 복합주제를 표현하거나 검색하는 색인 방식이다.
전조합색인은 색인작성 단계에서 색인어를 미리 결합해 완성된 복합표목을 만들며, 후조합색인은 개별 색인어를 독립적으로 부여한 뒤 검색 단계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개념을 결합한다.
결정적인 구별 기준은 색인어의 조합 시점이다. 전조합은 색인 시점, 후조합은 검색 시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조합색인은 두 개 이상의 색인어를 조합하여 문헌의 복합주제를 나타내는 색인법이므로 옳다.
② O — 전조합색인은 색인작성자가 복합주제를 미리 하나의 복합색인어로 구성하므로 이용자는 완성된 표목을 통해 한 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탐색 이전에 색인작성자가 색인어를 미리 조합해 둔다'와 '이용자가 별도로 개념을 조합할 필요가 없다'이다. 이는 전조합색인의 특징이다. 후조합색인은 개별 색인어를 따로 부여하고, 이용자가 검색할 때 이들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④ O — 주제명색인과 분류색인은 문헌의 복합주제를 색인작성 단계에서 미리 조직하여 표현하므로 전조합색인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전조합색인의 특징을 후조합색인의 특징으로 바꾸어 제시했다. '후조합'의 '후'는 문헌을 색인한 뒤 검색 단계에서 조합한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색인어를 누가 언제 조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색인작성자가 색인 단계에서 미리 조합하면 전조합이고, 이용자가 검색 단계에서 조합하면 후조합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조합은 미리 완성, 후조합은 검색할 때 결합이다.

문 10.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공지능윤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

②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③ 인공지능: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④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의 주요 용어와 정의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의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의가 가리키는 법정 용어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인공지능시스템은 여러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바탕으로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여 실제 또는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핵심 구분

법 제2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을 각각 정의한다. ②의 설명 내용은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와 일치하지만, 용어명이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잘못 제시되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인공지능윤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다.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② X
제시된 설명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이다.
틀린 표현: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올바른 표현: 인공지능시스템

③ O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④ O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다.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정의 문장 자체가 자연스럽고 정확해 보이지만, 정의 대상의 명칭만 바꾼 선지이다. 내용만 읽고 용어명을 대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상 정의 문제에서는 '용어명 → 핵심 기능 → 대상'의 순서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자율성·적응성'과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 추론'이 나오면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적 능력의 전자적 구현은 인공지능, 자율적으로 결과물을 추론하는 기반 시스템은 인공지능시스템, 입력을 모방해 새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NoteBase

문 11. 특정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어떤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중 N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N편일 때의 N의 최댓값”을 의미하는 것은?

①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

② h-지수(h-index)

③ 아이겐팩터 지수(Eigenfactor Score)

④ 즉각성 지수(Immediacy Index)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구자의 논문 수와 각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함께 반영하는 h-지수의 정의를 다른 학술지 평가지표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h-지수는 한 연구자에게 피인용 횟수가 각각 h회 이상인 논문이 h편 있을 때 가능한 h의 최댓값이다.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인용 영향력을 함께 나타낸다.
Impact Factor는 학술지에 실린 최근 논문들이 받은 평균 인용 수준을 나타내는 학술지 지표이다.
Eigenfactor Score는 학술지 간 인용 네트워크에서 인용한 학술지의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학술지의 전체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Immediacy Index는 학술지 논문이 게재된 바로 그해에 얼마나 빠르게 인용되는지를 나타내는 학술지 지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Impact Factor는 특정 연구자의 논문 중 일정 횟수 이상 인용된 논문 편수의 최댓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이며, 올바르게는 최근 일정 기간 학술지 논문의 평균 인용 수준을 평가하는 학술지 지표이다.
② O — ‘N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N편일 때 N의 최댓값’은 h-지수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들어 1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10편이라면 h-지수는 적어도 10이다.
③ X — Eigenfactor Score는 개별 연구자의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로 N의 최댓값을 구하는 지표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아이겐팩터 지수(Eigenfactor Score)’이며, 올바르게는 인용 네트워크와 인용 출처의 영향력을 고려해 학술지의 전체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④ X — Immediacy Index는 연구자의 누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즉각성 지수(Immediacy Index)’이며, 올바르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게재 당해 연도에 받은 평균 인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 선지 모두 인용을 이용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연구자', 'N회 이상', 'N편', 'N의 최댓값'이라는 표현은 h-지수만의 결정적 단서이고, 나머지 세 지표는 기본적으로 학술지를 평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용 횟수의 문턱과 그 문턱을 넘은 논문 편수를 같은 수 h로 맞추어 최댓값을 찾으면 h-지수로 판단한다. 평균 인용은 Impact Factor, 인용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Eigenfactor Score, 게재 당해 연도의 빠른 인용은 Immediacy Index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h-지수는 'h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h편'이다.

NoteBase

문 12. 정보검색 모델 중 '벡터 공간 모델(Vector Space Model)'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헌과 질의를 다차원 공간의 벡터로 표현한다.

② 질의와 문헌 간의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등을 통해 계산한다.

③ 문헌 내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주로 TF-IDF 기법을 사용한다.

④ 질의 용어가 문헌에 정확히 일치(Exact Match)해야만 검색 결과로 출력되는 엄격한 이진(Binary) 방식을 취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벡터 공간 모델이 문헌과 질의를 벡터로 표현하고 유사도에 따라 검색 결과를 순위화하는 모델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벡터 공간 모델은 문헌과 질의를 용어별 가중치로 이루어진 벡터로 나타내고,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관련성이 높은 문헌부터 제시하는 정보검색 모델이다.
벡터 공간 모델은 부분 일치와 순위화를 허용하지만, 불리언 모델은 논리 연산과 정확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문헌을 이진적으로 판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문헌과 질의를 각 용어가 하나의 차원을 이루는 다차원 벡터로 표현한다.
② O — 질의 벡터와 문헌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이용하는 코사인 유사도 등으로 관련성을 계산할 수 있다.
③ O — TF-IDF는 문헌 안에서 자주 나타나면서 전체 문헌 집합에서는 드문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므로 벡터의 용어 가중치 계산에 주로 활용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정확히 일치해야만'과 '엄격한 이진 방식'이다. 이는 불리언 검색 모델의 성격에 가깝다. 벡터 공간 모델은 질의와 문헌이 일부 용어만 공유해도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값에 따라 검색 결과를 순위화한다.

오답 포인트

정보검색 모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벡터 공간 모델과 불리언 모델을 혼동하기 쉽다. ④의 'Exact Match'와 'Binary'는 벡터 공간 모델의 연속적인 유사도 계산 및 순위화와 반대되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벡터·용어 가중치·코사인 유사도·부분 일치·순위화'가 나오면 벡터 공간 모델로 판단하고, '논리 연산·정확한 조건 일치·이진 판정'이 나오면 불리언 모델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벡터 공간 모델은 유사도를 계산해 순위를 매기고, 불리언 모델은 조건의 참·거짓을 판정한다.

NoteBase

문 13. 디지털 도서관과 오픈액세스 환경에서 논문, 저널, 데이터 세트 등의 디지털 객체에 부여되는 영구적인 국제 표준 식별자로, 웹 주소(URL)가 변경되더라도 자원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①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②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③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④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디지털 객체의 영구 식별자인 DOI와 출판물·연구자 식별자인 ISBN, ISSN, ORCID의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OI는 논문, 데이터 세트 등의 디지털 객체에 부여하는 영구 식별자이다. 객체의 실제 URL이 바뀌어도 DOI에 연결된 위치 정보를 갱신하면 같은 DO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ISBN은 단행본 등 도서 출판물을, ISSN은 저널·잡지 같은 연속간행물을, ORCID는 연구자를 식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논문, 저널 콘텐츠, 데이터 세트 등의 디지털 객체에 부여되는 영구 식별자이다. URL이 변경되어도 DOI의 연결 정보를 갱신하여 자원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② X — ISBN은 도서 출판물을 식별하는 번호이지 디지털 객체의 위치 변경에 대응하는 영구 접근 식별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ISBN'은 'DOI'로 고쳐야 한다.
③ X — ISSN은 저널이나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을 식별하는 번호이지 개별 논문이나 데이터 세트의 영구 접근 식별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ISSN'은 'DOI'로 고쳐야 한다.
④ X — ORCID는 이름이 같거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도 연구자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이지 논문·데이터 세트 같은 디지털 객체의 식별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ORCID'는 'DOI'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네 용어가 모두 국제적으로 쓰이는 식별자라는 점이 함정이다. 식별 대상이 디지털 객체이고 URL 변경 후에도 지속적인 접근을 지원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ISBN·ISSN·ORCID가 아니라 DOI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식별 대상을 확인한다. 디지털 객체는 DOI, 도서는 ISBN, 연속간행물은 ISSN, 연구자는 ORCID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객체 DOI, 도서 ISBN, 연속간행물 ISSN, 연구자 ORCID이다.

문 14. 메타데이터의 '내용규칙(Content Rule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용규칙은 메타데이터 요소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원으로부터 추출되고 표현되는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여, 메타데이터 작성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② '요소의 값을 선정하는 방법'의 예로는, 특정 정보자원에 본표제와 축약표제 등 여러 서명이 존재할 때 그 중 어떤 서명을 본표제로 채택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요소의 값을 표현하는 방식'은 메타데이터 작성 시 값을 자연어로 자유롭게 기술할 것인지, 아니면 통제어휘집에서 추출한 통제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더블린 코어(Dublin Core)에서 날짜를 표기할 때 'W3CDTF' 형식을 지정하여 'YYYY-MM-DD'와 같이 특정 형식으로 입력하도록 표준화하는 것은 '요소의 값을 표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메타데이터 내용규칙에서 '요소의 값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값을 표현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규칙은 메타데이터 요소에 어떤 값을 채택하고 그 값을 어떤 형식으로 기록할지를 정하는 규칙이다.
값의 선정은 여러 후보 중 어떤 명칭·용어·값을 채택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값의 표현은 채택한 값을 일정한 표기 형식이나 구문에 맞추어 기록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내용규칙은 정보원에서 요소값을 추출·선정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므로 메타데이터 작성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② O — 본표제와 축약표제 등 복수의 서명 가운데 어떤 것을 본표제로 채택할지 정하는 것은 '요소의 값을 선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자연어를 사용할지 통제어휘집의 통제어를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을 '요소의 값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사용할 값이나 용어의 범위를 정하는 '요소의 값을 선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선정된 값을 일정한 표기 형식이나 구문으로 기록하는 기준이 '요소의 값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④ O — 날짜를 W3CDTF에 따라 'YYYY-MM-DD'처럼 기록하도록 정하는 것은 선정된 날짜 값을 특정 구문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요소의 값을 표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자유어와 통제어 중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용어 선택 문제를 값의 표현 형식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반면 ④의 'YYYY-MM-DD'는 같은 날짜 값을 어떤 형식으로 기록할지에 관한 것이므로 표현 방식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엇을 값으로 채택하는가’이면 값의 선정, ‘채택한 값을 어떤 형식으로 적는가’이면 값의 표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엇을 쓸지 = 선정, 어떻게 적을지 = 표현이다.

NoteBase

문 15. 구글의 페이지랭크(PageRank Algorith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웹 페이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 중요한 페이지일수록 실제 페이지랭크 값은 높게 된다.
㉢ 어떤 질의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웹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랭크 값을 갖는다.
㉣ 페이지랭크에서 모든 페이지랭크 값의 합은 0이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페이지랭크가 웹 페이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링크 구조로 평가하는 질의 독립적 알고리즘임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페이지랭크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링크를 일종의 추천으로 보고 웹 페이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한다. 중요한 페이지에서 링크를 받을수록 더 높은 값을 얻으며, 특정 검색 질의의 내용이 아니라 웹 전체의 링크 구조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페이지랭크 값을 확률분포로 정규화하면 전체 합은 1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옳다. 페이지랭크는 웹 페이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며, 중요도가 큰 페이지일수록 페이지랭크 값도 높다.
② X — ㉡은 옳지만 ㉢의 '질의에 따라 다른 페이지랭크 값을 갖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페이지랭크는 특정 질의와 무관하게 웹의 링크 구조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질의 독립적 값이다.
③ X — ㉢과 ㉣은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페이지랭크는 질의와 무관하게 계산되며, 정규화된 모든 페이지랭크 값의 합은 0이 아니라 1이다.
④ X — ㉠은 옳지만 ㉣의 '합은 0이 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확률분포로 정규화된 페이지랭크 값의 합은 1이다.

오답 포인트

검색 결과의 질의별 관련도 점수와 페이지랭크를 혼동하면 ㉢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페이지랭크는 검색어와의 관련성이 아니라 링크 구조에서 얻는 전역적 중요도이며, 정규화된 값의 총합은 0이 아니라 1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페이지랭크 선지는 '링크 기반 상대적 중요도', '중요할수록 높은 값', '질의 독립적', '정규화 시 합은 1'의 네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페이지랭크는 링크로 정한 질의 독립적 중요도이며, 높을수록 중요하고 정규화된 합은 1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파일 포맷 중 장기 보존포맷으로 가장 적합한 포맷으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MPEG - GIF

② XML - HWP

③ GIF - XLS/XLSX

④ PDF/A - TIFF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장기 보존포맷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성이 낮고, 공개된 표준과 안정적인 재현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핵심 개념

PDF/A는 장기 보존을 목적으로 글꼴·색상 정보 등 재현에 필요한 요소를 문서 안에 포함하도록 제한한 표준화 PDF 형식이다.
TIFF는 비트맵 이미지를 무압축 또는 무손실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 원본 품질을 보존하는 이미지 마스터 형식으로 널리 쓰인다.
반면 특정 응용프로그램에 종속되거나 손실 압축·색상 제한이 큰 형식은 보존용 원본보다 이용·배포용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 MPEG는 주로 동영상·음성의 압축과 재생에 쓰이고 손실 압축이 일반적이며, GIF는 최대 256색이라는 제한이 있어 고품질 원본의 장기 보존용 형식으로 가장 적합한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보존용 문서에는 PDF/A, 고품질 비트맵 이미지에는 TIFF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② X — XML은 공개된 구조화 형식이어서 장기 보존에 활용할 수 있지만, HWP는 특정 프로그램과 버전에 대한 의존성이 커서 장기 보존용 대표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 HWP 문서는 장기 보존 시 PDF/A처럼 표준화되고 재현성이 높은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X — GIF는 색상 수가 제한되고, XLS/XLSX는 스프레드시트 응용프로그램의 기능과 구현에 영향을 받으므로 둘만을 장기 보존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짝지을 수 없다. 이미지 원본은 TIFF, 최종 문서의 고정된 표현은 PDF/A가 적절하다.
④ O — PDF/A는 전자문서의 장기 재현을 위한 표준 형식이고, TIFF는 무압축 또는 무손실 저장이 가능한 고품질 이미지 보존 형식이므로 장기 보존포맷으로 적합한 조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XML처럼 일부 형식 하나만 보존에 활용할 수 있어도 짝의 다른 형식까지 적합한 것은 아니다. 각 선지의 두 형식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익숙하고 널리 쓰이는 형식과 장기 보존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형식별로 공개 표준 여부, 특정 소프트웨어 의존성, 손실 압축 여부, 장기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문서 보존은 PDF/A, 고품질 이미지 보존은 TIFF라는 대응을 우선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 보존의 대표 조합은 문서 PDF/A, 이미지 TIFF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특정 커뮤니티(분야)와 해당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표준(Metadata Standard)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도서관: MODS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② 출판계: ONIX (ONline Information eXchange)

③ 예술작품: LOM (Learning Object Metadata)

④ 연방정부 정보: GILS (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메타데이터 표준의 이름과 그 표준이 주로 기술하는 정보 자원의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ODS는 도서관의 서지 정보를 XML로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다.
ONIX는 출판사와 유통업체 등이 도서 상품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LOM은 교육용 디지털 자료인 학습 객체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GILS는 정부 정보 자원의 소재와 접근 정보를 찾도록 기술하는 표준이다.
예술작품을 기술하는 대표 표준으로는 VRA Core나 CDWA가 있으며, LOM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MODS는 풍부한 서지 정보를 구조화하여 표현하므로 전자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기술에 활용된다.
② O — ONIX는 출판·도서 유통 분야에서 서명, 저자, 가격 등 도서 상품 정보를 교환하는 표준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예술작품: LOM'이다. LOM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학습 객체를 기술하는 표준이며, 예술작품에는 VRA Core나 CDWA 같은 표준이 사용된다.
④ O — GILS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 자원의 소재와 접근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표준으로, 연방정부 정보와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LOM에서 Object만 보고 일반적인 작품이나 객체를 기술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LOM의 Object는 일반 물체가 아니라 교육에 쓰이는 'Learning Object'를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약어의 핵심 단어와 사용 공동체를 연결한다. MODS는 도서관 서지, ONIX는 출판 유통, LOM은 학습 객체, GILS는 정부 정보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MODS-도서관, ONIX-출판, LOM-학습, GILS-정부 정보이다.

NoteBase

문 18. 오픈액세스(OA) 리포지터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 리포지터리용 플랫폼으로는 Dspace와 Eprints 등이 있다.

② OpenDOAR은 OA 리포지터리를 검색할 수 있는 목록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③ 주제 리포지터리란 특정 학문 분야나 주제의 연구성과물이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이다.

④ 기관 리포지터리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의 유형, 구축 플랫폼, 검색 디렉터리, 셀프 아카이빙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확정정답은 ④이지만, ④는 국립중앙도서관 OAK의 설명과 충돌하므로 출제 의도와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핵심 개념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는 연구성과물을 온라인에 저장·보존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는 디지털 저장소이다. 기관 리포지터리는 특정 대학·연구기관 구성원의 연구성과물을 기관 차원에서 수집·보존·공개하고, 주제 리포지터리는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특정 학문 분야나 주제의 연구성과물과 데이터를 모은다.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가 논문 등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리포지터리에 직접 기탁하여 공개하는 그린 오픈액세스 방식이다. 기관 리포지터리와 주제 리포지터리 모두 셀프 아카이빙의 저장소가 될 수 있고, 기관 리포지터리에는 데이터셋도 저장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DSpace와 EPrints는 기관 리포지터리를 구축·운영하는 데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② O — OpenDOAR은 전 세계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정보를 수집한 디렉터리로, 리포지터리를 찾아볼 수 있게 한다.

③ O — 주제 리포지터리는 특정 학문 분야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성과물 또는 연구데이터를 수집·보존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이다.

④ 공식 정답상 X — 출제자는 기관 리포지터리의 본질을 '특정 기관의 연구성과물을 기관 차원에서 수집·보존·공개하는 저장소'로 보고, 저자 셀프 아카이빙을 통한 '데이터 축적'을 기관 리포지터리의 일반적 정의처럼 표현한 부분을 부정확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선지는 통상적인 개념에 따르면 참으로 볼 여지가 크다. 국립중앙도서관 OAK는 셀프 아카이빙으로 구축되는 저장소 유형에 기관 리포지터리를 포함하고, 기관 리포지터리에서 데이터셋도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④는 확정정답에 맞추어 선택하되, 일반 이론상 명백한 오답이라기보다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선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시험에서는 ④를 고른다. 다만 틀린 핵심을 억지로 '기관 리포지터리에서는 셀프 아카이빙을 하지 않는다'거나 '데이터셋을 저장할 수 없다'로 외우면 안 된다. 두 주장 모두 OAK 설명과 어긋난다. 출제 의도상으로는 기관 리포지터리의 정의 기준이 수집 방식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연구성과물'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문항이 다시 나오면 확정정답에 따라 ④를 선택한다. 일반 문제에서는 리포지터리를 수집 범위로 구별한다. 특정 기관의 산출물을 모으면 기관 리포지터리이고, 특정 학문 분야의 자료를 소속과 무관하게 모으면 주제 리포지터리이다. DSpace·EPrints는 구축 플랫폼, OpenDOAR은 리포지터리 디렉터리이며, 셀프 아카이빙은 두 유형의 리포지터리에서 모두 가능한 기탁 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기관=소속 기관의 성과, 주제=학문 분야의 성과, DSpace·EPrints=구축 플랫폼, OpenDOAR=리포지터리 디렉터리. 2026 법원직 18번은 확정정답 ④이지만 개념상 논란이 있는 문항이다.

NoteBase

문 19. ISO/IEC에서 채택한 국제표준인 토픽 맵(Topic Maps)의 핵심 구성요소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① 주제(topic) - 연관(association) - 발현(occurrence)

② 자원(resources) - 속성(property) - 값(value)

③ 개체(individual) - 속성(property) - 데이터 타입(type)

④ 주어(subject) - 술어(predicate) - 목적어(object)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토픽 맵의 세 핵심 구성요소인 주제(topic), 연관(association), 발현(occurrence)을 다른 지식 표현 방식의 구성요소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제(topic)는 사람·장소·개념 등 표현하려는 대상을 나타낸다. 연관(association)은 주제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발현(occurrence)은 주제와 관련된 문서·웹 페이지 등의 정보 자원을 연결한다. 따라서 토픽 맵은 '주제-연관-발현'의 구조로 지식을 조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제, 연관, 발현은 토픽 맵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주제는 대상, 연관은 주제 간 관계, 발현은 주제와 관련 정보 자원의 연결을 담당한다.
② X — '자원-속성-값'은 토픽 맵의 핵심 구성요소를 나타낸 조합이 아니다. 틀린 조합인 '자원(resources)-속성(property)-값(value)'은 '주제(topic)-연관(association)-발현(occurrence)'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개체-속성-데이터 타입'은 토픽 맵의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다. 개체·속성·데이터 타입은 온톨로지나 데이터 모델에서 쓰이는 표현이며, 토픽 맵의 구성요소로는 '주제-연관-발현'이 맞다.
④ X — '주어-술어-목적어'는 RDF에서 하나의 사실을 표현하는 트리플 구조이다. 토픽 맵의 구성요소를 묻는 이 문항에서는 이 조합을 '주제-연관-발현'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주어-술어-목적어'는 의미 관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토픽 맵과 비슷해 보이지만 RDF의 트리플이다. 토픽 맵의 association은 관계 자체이고, occurrence는 주제와 관련 정보 자원을 연결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별 대표 구성요소를 먼저 대응한다. 'topic-association-occurrence'가 보이면 토픽 맵, 'subject-predicate-object'가 보이면 RDF 트리플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토픽 맵은 주제를 정하고(topic), 주제끼리 연결하며(association), 관련 자료를 붙인다(occurrence).

문 20. 부다페스트 선언(BOAI, 2002)에서 제시한 오픈액세스 (OA)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법률적·기술적 장벽 없이 논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저작에 대한 통제권은 출판사가 가지며,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최대한 재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부다페스트 선언이 규정한 오픈액세스의 핵심인 무료 접근, 장벽 없는 이용, 폭넓은 재사용, 저자의 권리 보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픈액세스는 학술문헌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재정적·법률적·기술적 장벽 없이 읽기·다운로드·복제·배포·검색 등 폭넓은 이용을 허용하는 공개 방식이다. 다만 저작물의 완전성을 통제하고 저자로 인정받으며 인용될 권리는 저자에게 남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오픈액세스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② O — 인터넷 접속 자체에 수반되는 장벽 외에는 재정적·법률적·기술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에 부합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저작에 대한 통제권은 출판사가 가진다'이다. 올바르게는 저작물의 완전성을 통제하고 저자로 인정받으며 인용될 권리는 저자에게 있다. 출처를 밝혀 인용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통제권의 주체를 출판사로 바꾼 부분이 틀리다.
④ O — 별도의 개별 허가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복제·배포·검색 등 폭넓게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맞는 내용을 뒤에 붙여 앞부분까지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판별의 핵심은 통제권의 주체가 출판사가 아니라 저자라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픈액세스 선지는 '무료 접근', '재정적·법률적·기술적 장벽의 제거', '폭넓은 이용과 재사용', '저자의 완전성 통제와 저자 표시·인용 권리'에 맞는지 확인한다. 출판사가 저작 통제권을 가진다고 하면 부다페스트 선언의 정의와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OA는 접근과 이용은 열고, 저자의 표시·인용과 완전성 통제 권리는 남긴다.

NoteBase

문 21. Creative Commons(CC) 라이선스의 기본 조건 요소 중 모든 CC 라이선스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필수 조건은?

① ND(변경금지)

② SA(동일조건변경허락)

③ BY(저작자표시)

④ NC(비영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의 네 가지 조건 요소인 BY, NC, ND, SA 가운데 모든 CC 라이선스에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Y(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적절한 출처와 공로를 표시하도록 하는 조건이며, 여섯 가지 주요 CC 라이선스에 공통으로 포함된다. NC는 비영리 이용만 허용하고, ND는 변경한 저작물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SA는 변경한 저작물을 같은 조건으로 공유하게 하는 선택적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ND(변경금지)는 모든 CC 라이선스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모든 CC 라이선스에 공통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변경한 저작물의 공유를 금지하려는 라이선스에만 ND가 붙는다.
② X — SA(동일조건변경허락)는 모든 CC 라이선스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모든 CC 라이선스에 공통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변경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조건으로 공유하게 하려는 라이선스에만 SA가 붙는다.
③ O — BY(저작자표시)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출처와 공로를 표시하게 하는 요소로, 모든 주요 CC 라이선스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필수 조건이다.
④ X — NC(비영리)는 모든 CC 라이선스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모든 CC 라이선스에 공통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려는 라이선스에만 NC가 붙는다.

오답 포인트

ND, SA, NC도 CC 라이선스의 기본 조건 요소이므로 모두 필수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기본 조건 요소'와 '모든 라이선스의 공통 필수 조건'은 다르며, 공통 요소는 BY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라이선스 이름이 모두 CC BY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한다. BY는 공통 바탕이고, NC·ND·SA는 저작자가 허용 범위를 정할 때 조합하는 추가 조건이다.

암기 포인트

CC의 공통 필수는 BY, 선택적으로 붙는 조건은 NC·ND·SA이다.

NoteBase

문 22. 저작권법에 기술된 저작물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③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의 보호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새로 작성된 저작물 자체의 보호와 원저작자 권리의 존속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이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다.

핵심 구분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그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제6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반면 제7조에 열거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 옳다. 다만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② X —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틀린 표현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이고, 올바른 표현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이다.
③ O — 2차적저작물이 별도로 보호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옳다.
④ O — 사실을 정형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그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2차적저작물이 원저작자의 권리와 별개로 보호된다는 점을 놓치게 하는 선지이다. '2차적저작물의 독자적 보호'와 '원저작자 권리의 불침해'는 동시에 성립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번역·편곡·각색 등으로 새롭게 창작한 결과물은 먼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지 판단하고, 이어 그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 보호, 원저작자와 소재 권리는 그대로 존속, 단순 사실 시사보도는 비보호이다.

문 23. 검색성능 평가 척도 중 정확률(precis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색시스템이 부적합문헌을 검색해 내지 않는 능력이다.

②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③ 검색된 부적합문헌의 비율이다.

④ 정확률 40%는 검색된 문헌 10개 가운데 6개가 적합문헌임을 의미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확률은 검색된 문헌 중 적합문헌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확률은 검색된 문헌의 정확성을 나타내며, 정확률 = 검색된 적합문헌 수 / 검색된 전체 문헌 수이다. 따라서 정확률이 높을수록 검색 결과에 부적합문헌이 적다. 재현율은 전체 적합문헌 중 실제로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이므로, 정확률과 분모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확률이 높다는 것은 검색 결과에 부적합문헌이 적다는 뜻이므로, 부적합문헌을 검색해 내지 않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이는 재현율의 여집합인 누락률에 해당하며, 정확률은 '검색된 전체 문헌 중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검색된 부적합문헌의 비율'이다. 이는 정확률의 여집합인 잡음률에 해당하며, 정확률은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④ X — 정확률 40%라면 검색된 문헌 10개 가운데 적합문헌은 4개이고 부적합문헌은 6개이다. '6개가 적합문헌'이라는 표현은 '4개가 적합문헌'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에 초점을 두어 재현율과 혼동하게 하고, ③은 정확률 자체가 아니라 그 여집합을 제시한다. ④는 40%를 부적합문헌의 비율처럼 뒤집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확률은 먼저 '검색된 문헌'만을 분모로 잡고 그중 적합문헌의 비율을 계산한다.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이 언급되면 재현율 또는 누락률의 문제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확률은 검색 결과의 순도, 재현율은 전체 적합문헌을 찾아낸 정도이다.

NoteBase

문 24. 다음 중 더블린 코어(Dublin Core) 메타데이터의 15개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Title(표제)

② Creator(저작자)

③ Affiliation(소속기관)

④ Format(형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더블린 코어의 15개 기본요소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더블린 코어는 정보자원의 기술과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범용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다. 15개 기본요소는 Title, Creator, Subject, Description, Publisher, Contributor, Date, Type, Format, Identifier, Source, Language, Relation, Coverage, Rights이다. Affiliation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Title(표제)은 자원에 부여된 이름을 나타내는 기본요소이다.
② O — Creator(저작자)는 자원의 내용 작성에 주된 책임을 가진 개체를 나타내는 기본요소이다.
③ X — Affiliation(소속기관)은 더블린 코어의 15개 기본요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Affiliation이 15개 기본요소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Affiliation을 제외하고 Contributor, Publisher, Subject 등 정식 기본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④ O — Format(형식)은 파일 형식, 물리적 매체 등 자원의 형식을 나타내는 기본요소이다.

오답 포인트

Creator의 소속기관도 서지정보처럼 보이므로 Affiliation을 독립된 기본요소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더블린 코어의 기본요소에는 Creator와 Contributor는 있어도 Affiliation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기관 관련 항목에서는 Creator, Contributor, Publisher가 기본요소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와 비슷해 보이는 Affiliation은 기본 15요소가 아니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저작자는 Creator, 기여자는 Contributor, 발행자는 Publisher이며 소속기관 Affiliation은 기본 15요소가 아니다.

NoteBase

문 25. 베르치히와 네벨링(Wersig & Nevelling, 1975)이 분류한 정보학에 대한 견해 중, 사서나 분류이론 및 시스템 설계에 관심을 가지는 실무 중심의 부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상 지향적 견해(phenomenon-oriented view)

② 방법 지향적 견해(means-oriented view)

③ 기술 지향적 견해(technical-oriented view)

④ 목적 지향적 견해(purpose-oriented view)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베르치히와 네벨링이 정보학을 바라보는 네 가지 견해를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사상 지향적 견해: 정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정보학을 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파악한다.
방법 지향적 견해: 분류, 도서관 실무, 정보시스템 설계 등 실제 정보 업무에 쓰이는 방법과 수단에 초점을 둔다.
기술 지향적 견해: 전자적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정보의 저장과 검색에 적용하는 측면에 초점을 둔다.
목적 지향적 견해: 정보학이 충족해야 할 사회적 필요와 그 필요를 위한 실천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상 지향적 견해는 정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 현상 자체를 정보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입장이다. 틀린 연결은 '사서나 분류이론 및 시스템 설계에 관심을 가지는 실무 중심'이며, 올바르게는 '정보라는 현상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O
방법 지향적 견해는 실제 정보 업무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중심으로 정보학을 규정한다. 사서직, 분류이론, 컴퓨터화된 정보시스템 설계에 관심을 두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 X
기술 지향적 견해는 정보학을 전자적 데이터 처리 장비를 정보의 저장과 검색에 적용하는 컴퓨터과학의 한 영역으로 보는 입장이다. 틀린 연결은 '사서나 분류이론 중심의 실무 부류'이며, 올바르게는 '정보의 저장·검색에 전자적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 견해'이다.

④ X
목적 지향적 견해는 정보학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그 필요와 관련된 실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틀린 연결은 '분류나 시스템 설계라는 수단 중심'이며, 올바르게는 '정보학이 봉사해야 할 사회적 필요와 목적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시스템 설계'라는 표현 때문에 ③ 기술 지향적 견해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단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서직·분류이론·시스템 설계처럼 실제 정보 업무에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을 함께 묶었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상 자체이면 사상 지향, 실무의 방법과 수단이면 방법 지향, 전자적 처리·저장·검색 기술이면 기술 지향, 사회적 필요이면 목적 지향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사서·분류·시스템 설계 = 실무 수단 = 방법 지향이다.

NoteBase